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계성건설, 3년 연속 도내 1위 고수... 8년동안 1군업체 '전무' 종합건설업 육성 방안 시급

대한건설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20년도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공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에 따르면 30일 발표한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계성건설(주)이 2,432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주)신성건설(2,399억원)과 (주)제일건설(1,606억원)로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전년도 25

위였던 (주)개성토건이 9위로 새롭게 'TOP 10위권'으로 진입했다.

또, 지난해 50위권 밖에 있었던 삼흥종합건설(주)(60위→38위), 한동건설(주)(52위→39위), (유)신호건설산업(61위→40위), (주)에이치엘종합건설(63위→42위), (주)발해(75위→43위), 영록건설(주)(53위→44위), (유)명산건설(55위→45위)이 새롭게 50위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연속 도내에 1등급 업체는 없는 가운데, 상위 50위권의 시공액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주요 원인으로는 SOC물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타지역 공사수주, 민간사업 및 업무시설 건설 공사의 실적 증가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전국적으로 1등급 업체가 56개사나 되지만 도내에는 지난 8년간 1등급 업체가 없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건설 투지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정치·금융권·업계 등이 모두 힘을 합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밝혔다.

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공공공사의 등급별 유지계약 명부제,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급하한제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2020년도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은 8월1일부터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사무처에 방문하면 건설수첩에 기장 받을 수 있다.

/김윤상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합리조트 및 전시·문화시설 전문가인 간삼건축 김미정 상무가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경험의 가치- 파라다이스 시티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새만금 '문화·예술 숨쉬는 파라다이스 시티를 중심으로'

개발청, 김미정 간삼건축 상무 초청 직원 역량강화 교육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투자 유치에 관한 직원들의 경문을 넓히고 전문능력을 키우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새만금개발청 직원뿐만 아니라 전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들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교육은 복합리조트 및 전시·문화시설 전문가인 간삼건축 김미정 상무가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경험의 가치- 파라다이스 시티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인천공항 인근

33만m2 용지에 약 2조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문화·예술 복합리조트다.

김 상무는 파라다이스 시티 내 완성된 공간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갖는 도시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건축물의 이면에 담긴 설계과정과 이를 통해 방문객이 누리는 차별화된 경험을 소개했다.

또한 교육 참석자들과 새만금 지역 내 개발되는 공간들의 의미와 역할을 발굴하고 이를 융합해 새만금민의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건축물과 공간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새로운 의미부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새만금 지역 내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새만금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엿봤다" 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개발 트렌드(추세)와 다양한 성공사례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력적인 투자여건 조성 과 함께 직원들의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유효성 기자

생진원, 식품산업 전직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일환 실업·예비인력 등 대상... 총 4회 걸쳐 시행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용차 산업 등 지역 고용위기 산업에서 발생한 실업인력 및 예비인력을 대상으로한 전직교육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전라북도와 익산시-김제시-완주군이 컨소시엄으로 지원하고 있다.

식품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인력 부족률이 높은 산업으로 고용 유망 산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식품산업의 자동화, 스마트화에 따른 관련 기계 관련산업 경력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 기본적인 현장관리, 법규 및 위생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 전문인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교육과정은 3주간 운영되며 식품 현장에 필요한 기본 법규 및 위생관리, 현장안전교육, HACCP법정교육 및 식품기법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용차 산업 등 지역 고용위기 산업에서 발생한 실업인력 및 예비인력을 대상으로한 전직교육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17기 교육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60여명의 교육 및 채용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그밖에 식품기업 사업화지원 및 정착금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진원은 농식품산업 혁신고도화를 위한 기업성장지원, 창업지원, 산업간 전직지원, 취업 정착금 지원 등

을 추진하고 있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전북 식품산업의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관의 모든 역량을 활용하여 지원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홈페이지(www.jifre.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전북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소비 할인쿠폰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30일부터 관내 하나로마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산 농산물소비 할인쿠폰 행사'에 동참해 농산물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쿠폰 행사는 코로나19 피해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추진된 정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전국적인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이다.

이번 행사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2주간이며, 행사상품 구매 시 하나로마트 회원대상 1인 최대 1만 원 한도에서 20% 자동 할인된다. 행사 품목은 과일(방울토마토, 복숭아, 자두 등), 채소(마늘, 대파, 옥수수 등)로 적용되며 식탁물가를 낮추기 위해 각 매장별로 추가 할인쿠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할인쿠폰 행사는 정부 예산(400억원)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김윤상 기자

국민 92.1% 건강보험에 '긍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4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2%이다. 공단에 따르면 조사 결과 긍정적(매우 긍정적 24.4%, 대체로 긍정적 67.7%) 평가가 92.1%로 모든 연령대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리서치 김춘석 상무사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치와 효용을 실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인삼 종자 수확 직후 바로 개갑처리 해야"

바로 개갑처리 해야

전북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인삼 종자를 수확 직후 바로 개갑처리를 해야 발아율을 높이고 건설한 묘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확한 직후 인삼종자 배(씨눈)는 미숙상태 그대로 파종하면 발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배(씨눈)를 성숙시키는 작업을 해야하는데 이 작업을 개갑처리라고 한다.

인삼은 5월 하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7월 중·하순경부터 열매가 붉게 익기 시작한다. 붉게 익은 완숙 종자를 채종해 붉은 과피를 제거하고 빠른 기간내에 개갑처리를 해야 한다. 개갑처리를 하는 방법은 붉은 과피를 제거한 종자를 물에 잘 씻고 씻은 때 물에 뜬 종자 직경이 4mm 정도의 체로 쳐서 빠진 종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권산=장영환 기자

'상생(相生) 플러스' 하세요

전은 '미래에셋상생플러스펀드' 대표펀드로 자리매김
출시 3개월 만에 7%대 수익률 100억 가까운 수탁고 기록

IB금융그룹 전복은행(은행장 임용택)에서 투자자 및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주목받았던 '미래에셋상생플러스펀드(이하 상생플러스펀드)'가 매력적인 성과와 함께, 중소업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급하한제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출시 3개월만에 7%대(7.29일 기준 C클래스 수익률 7.33%)의 수익률을 내면서 개인 및 일반 법인 자금으로만 100억 가까운 수탁고를 기록 중이다. 공모 펀드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플러스펀드의 불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복은행 서한국 수석부행장은 "투자자 분들에게서 전복은행에 보내신 신뢰를 바탕으로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상생플러스펀드를 전복은행의 대표펀드로 육성해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상생플러스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적기에 출시하여 제로금리 시대를 이기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생플러스펀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협업으로 지난 4월말 출시했다. 글로벌 채권투자를 기반으로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으로 운용되는 중위험·중수익 투자 상품이다. 이 펀드가 '착한펀드'로 불리는 이유는 판매보수와 운용보수의 각 30%를 기금으로 적립해 사회공헌활동 및 금융산업 발전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전복은행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금이나 채권형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적합한 펀드"라며 "연금으로도 가입 가능해 하반기 들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상생플러스펀드는 전복은행 영업점, 인터넷 뱅킹 및 뉴스마케팅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에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농어촌공 전복, 재해대비 건설공사장 합동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현장 재해 대비를 위해 지난 28,29일 양일간 도내 농촌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현장 2곳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송재성)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위기철 비상상황 발생 시 공사현장의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직원 안전관리교육 등을 점검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제거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4월 22일 한국산업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업무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공사현장 합동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재해예방 인프라 확산, 안전 보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전북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해오고 있다.

이강환 본부장은 "전북 관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위탁기관 약정을 체결하고 30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전주상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추진

배정인원 285명...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위탁기관 약정 체결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김영규)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위탁기관 약정을 체결하고 30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에게는 IT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주상의의 285명을 배정 받았다.

지원대상 기업은 참여신청 직전 월 말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며,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채용청년의 직무가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유형에 부합하는 IT관련 직무여야 하며, 참여유형은 △콘텐츠 기획(홈페이지 기획·

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빅데이터 활용형(앱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분석 등) △기록물 정보화형(기업내 아날로그문서, 기록물들의 전산화 및 DB화) △그라 기업별로 특화된 IT분야 직무이다.

참여자 요건으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채용일 현재 미취업상태여야 하며, 최소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경제위기시대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물론 기업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참여자는 전주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63-280-115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